

특별대담

지령 1천호를 받는 본보는 근 본적인 의미에서 대학이 가지는 성격과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와 위치는 무엇이며, 지난 40여년간 대학주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이번 대담을 마련하였다.

대담은 과거 대학주부 기자 출신이면서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안병준(서울신문 사회2부 차장)씨가 맡았다.

〈편집자 주〉

안병준: 안병준입니다. 대학주부가 이번호로 지령 1천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 1955년 신동대학(경희대학교의 전신)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지 5월 12일 대학주부는 신동대학이라는 제호를 창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희와 함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절을 회고하면서 뜻깊은 대학주부 지령 1천호를 맞는 총장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총장: 벌써 대학주부가 1천호라니 다시금 경희의 역사가 많이 흘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 경희 사십여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 동문, 교수, 학생들 모든 경희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대학주부 1천호는 수 많은 사람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쌓아올린 금자탑입니다. 민주사회는 여론사회입니다. 대학의 여론형성에 일익을 담당한 대학주부가 상임주부의 배려와 아가페미친한 신문으로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오고, 대학신문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서 타대 신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대학주부가 지령 1천호를 맞이하였다는 것에 대해 대학주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모든 경희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동문: 대학주부가 대학언론으로서 차지하는 의의와 대학문화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학주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총장: 먼저 대학주부의 역할에 대해 말하면 경희의 전통과 계승, 학풍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하겠습니. 더 나아가 경희발전에 대한 기여가 보편적 진리의 추구, 정의 구현의 의미로 새겨질 대학주부의 노력은 민족의 성장과 인류역사의 발전에 동참하는 세계사의 추진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학주부의 이 힘은 그 뿌리를 경희 토양에 내리고 경희정신의 자양분으로 윤택하게 커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주부가 이렇게 지령 1천호의 거목으로 성장하게끔한 터전인, 경희학원은 창학 초기부터 정신사적 맥을 개인의 교육에 있어서는 민주적 전진(全進)의 양상에 두었으며, 교육의 궁극적 이상으로는 문명사의 미래를 조망하여 바림직 미래세계상을 모색하는 문명사적 대인의 추구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시(敎示)에서도 알 수 있

듯이 경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 세계는 서양의 과학기술문명과 중앙의 정신문명이 융화되어 이루어진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종합문명사회의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주부의 선구자적 역할을 기대하며 이

경희의 정신을 세계로 퍼자

대학주부의 위치와 대학사회의 진로

학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경희학원은 미래지향적 학교이념을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의 집합체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경희는 이루어졌습니다. 무에서 유가 되기위해선 창의성을 개발, 살려가야 합니다. 진취적인 기상, 그것은 해내고 말겠다는 힘이 있어야함을 의미하며, 건설적인 협동은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배려하는 협동으로 서로가 긍정적인 이해로서 서로를 도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희는 이러한 정신으로 오늘의 경희를 이룬것입니다. 이제 경희 한가죽은 민족과 세계앞에 펴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적인 노력들을 더욱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안동문: 이런 경희의 이념은 단순한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낸 이념이라 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조총장: 많은 실천들이 있었으나, '잘살기운동'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경희의 농촌계몽활동은 '잘살기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새마을운동으로 발전된 계기가 된 것은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잘살기운동에대한 깊은 관심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대령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면에는 대학주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처음 잘살기운동이 시작되었을때는 대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학주부는 끊임없이 이 운동의 이념을 널리 펼치고, 그 운동의 성과들을 능동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이 운동의 목적과 활동을 이해하게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학주부는 절대빈곤의 당시 상황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한국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안동문: 잘살기운동은 총장님의 교육이념과 철학의 결과로 생각되는 데 총장님의 철학을 스스로 규정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조총장: 저는 물질주의에 찌든 사회가 아닌 도덕적으로 건장한 사회, 평화로운 민주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많은 오해를 낳았지만, 사회가 서로간의 위화감과 이념의 갈등으로

우리대학의 교훈 之國亦告義知 시인 '문화세계의 창조'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이 세 이념은 곧 교육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의 대학은 물론 사회 모든 부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안동문: 말씀 감사합니다. 제 자신이 학창시절엔 총장님의 이념에 대해 솔직히 많은 오해를 가졌 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보니 총장님의 주장의 긍정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절대빈곤에서 이제 선진국 진입의 위치에 와있습니다. 경희의 이러한 많은 운동이 한국현대사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경희가족의 일원으로 자

율리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에서 경희인은 모두 경희정신으로 무장해서 사회 민주화의 초석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면서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경희인이 이러한 의지로 똘똘한 우리대학의 앞날을 그 어느때보다 밝다고 믿습니다.

안동문: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늘날 같은 신 국제질서 형성기에 있어서 우리대학 국제사회에 발전에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조총장: 이 세계는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역사

는 그 의지의 실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잘살기 운동'의 전개를 필두로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 '세계평화운동'으로 확장, 전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온 세계에 전파시켰 습니다. 동시에 교육의 정신적 토대를 그 위에 두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희의 젊은 역사속에서도 굴지의 종합학원으로 성장, 오늘의 경희를 이루하였고, 경희는 '한편 된다'는 개척정신으로 물리설 줄 모르는 전진만을 거듭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내일을 다짐하기 위해서 도전과 극복으로 새 출발, 새로운 의미의 새 경희를 이룩할 이 시기에

교육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희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주인은 경희정신으로 무장한 경희인입니다. 경희의 환경이라 모교를 사랑하는 절실한 마음은 우리 경희민주화 곧 교육의 민주화로 전개될 것입니다. 방종적 자유가 아닌 자율적 자유로서 학원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병리현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의 이기주의, 물질문명에 찌든 원칙을 무시한 경쟁주의와 대회의 부재 그리고 물리력을 앞세운 이타타자적인 집단행동을 사회혼란의 주 원인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대학에서 까지 만연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안동문: 공헌 학기에 들어 등 록금전통등으로 인하여 학교가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 총장께서는 이번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총장: 최근 등록금분쟁과 노조의 파업은 학내 공동체체질의 결여로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소중한 민주주의를 잘못 소화하면 규율, 분열이 생깁니다. 생산성없는 싸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희가족들의 분규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이기고 지는 것

아 하며 대학주부가 경희속에 '신문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조총장: 대학내에서 언론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은 대학문화에 지배하는 거목으로서 나타납니다. 대학문화 창달의 일익을 담당하고 언제나 정론을 펼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대학신문 가운데 대학주부는 대학다운 기개를 늘 견지하며 노력해온 결과 경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변함 없이 간직해온데 대하여 경희인 모두의 축하의 뜻이 대학주부 지령 1천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문화의 선구자로서 경희 발전에 대해 독려했던 대변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경희인의 정론을 본인은 큰 보람과 긍지로 여기며 앞으로 대학주부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며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를 사랑하는 신문으로 학교의 얼굴로서 애교심을 근본으로 경희가족이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향해 내딛는 힘찬 새걸음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결코 혼란한 시류의 매몰되지 않고 확실한 주관과 목표를 가지고 정사(正事), 정론(正論), 정필(正筆)의 사시(社時)를 계속 견지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언론이 발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신문으로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조화시키고 짧은 지성인으로서 날카로운 지성을 승화시켜 바람직한 대학문화에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봉사하고 민족적 정의에 충실하고 역사발전에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신문으로서 거름날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제일 임무가 진리탐구에 있는 까닭에 대학의 힘은 무엇보다도 진리탐구와 현실적 구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실천이 곧 정의의 실천이고 이것이 축적되어 역사는 발전해 나가며 우리의 지향점인 민주사회건설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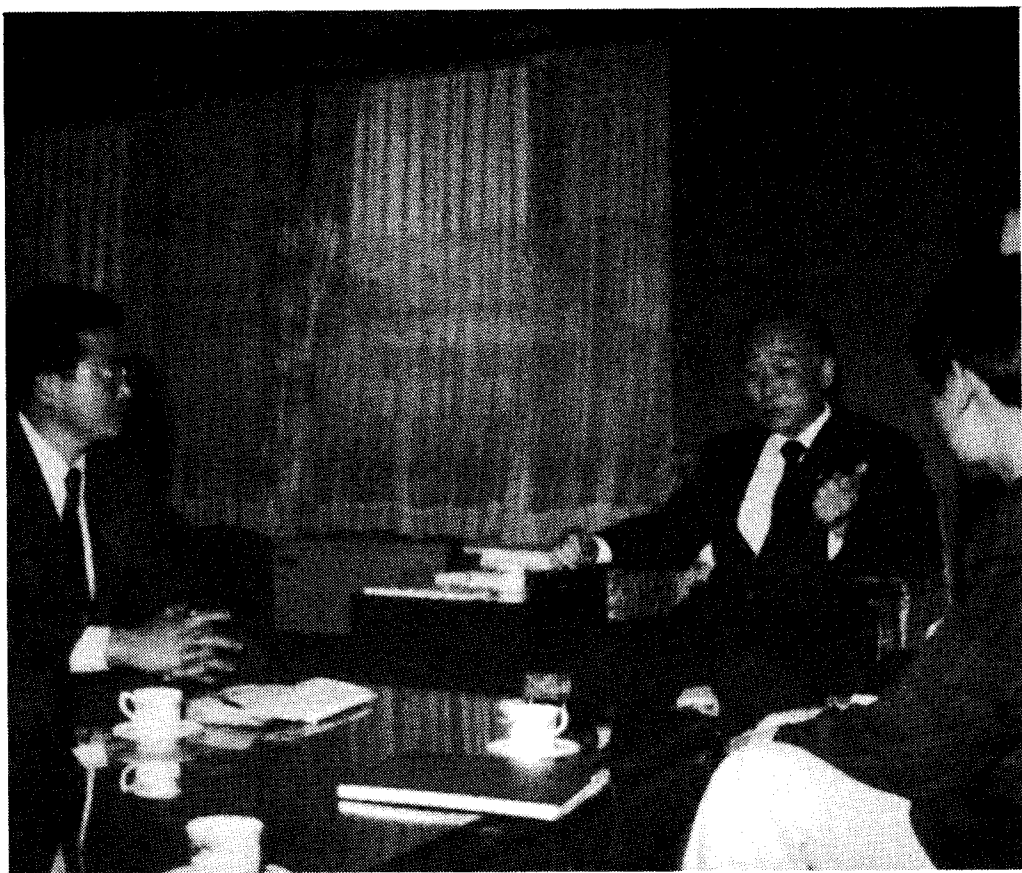
안동문: 예! 그동안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총장님께서 전 경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조총장: 21세기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경희인은 꿈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젊은이의 패기로서 너무 이기적 타산적이고 현실타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미래 지향적이며 이타적인 활동으로 비전있는 젊은이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세계사의 중심지가 될 한반도의 대학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든 경희인과 함께 대학주부 1천호발간을 참마음으로 축하하며 대학주부의 앞날에 무궁한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고 경희의 앞날과 대학주부의 예도 큰 발전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안동문: 대학주부 지령천호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경희의 미래와 대학주부의 방향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고 회(高)에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의 대담을 통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학주부 1천호가 더욱 빛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러한대 대학주부가 대학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은 어떠한



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총장님께서는 경희학원을 설립하시고, 현재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 시는 대학이 사회의 민주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며, 경희의 비전은 어떠한다고 보십니까?

조총장: 대학은 고등교육의

필연과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사실은 가까이 경희가 전향하여 예비해온 미래의 사회는 세계사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문명의 중심이동을 살펴보면 서구에서 출발한 과학문명과 중앙의 정신문명은 이제 아시아 대륙까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총장: 대학은 고등교육의

뜻은 높게두고 눈은 현실에, 그리고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토대에 미래를 겨냥한다면 경희는 세계사에 크나큰 기수가 될것입니다.

안동문: 대학사회의 민주화는 사회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총장께서는 대학이사회민주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쌓아올린 '금자탑' '경희'의 미래상과 문화를 밝히는 등불되길

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바로 우리의 '밝은사회운동'이 그 요구에 부응하였던 것입니다. 그 서에서는 우리 한반도를 인인지국(仁人之國), 동아시아의 동진(東進)의 지국(支國)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밝은사회운동'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상아탑이며, 학문을 연구, 국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대학의 생명을 가질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술탐구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우리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는 머지않아 동북아 시대가 개막될 것임을 예시합니다. 문명의 중심이동은 동시에 문명의 내용과 방향수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 세기 여 동안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나 문명사학자들은 서구 과학기술문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아시아 문명사학자들은 서구 문화의 모방에 노력하면서 미래세대의 좌표가 종합문명의 건설에 있다고 누누히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명사의 진운은 경희의 예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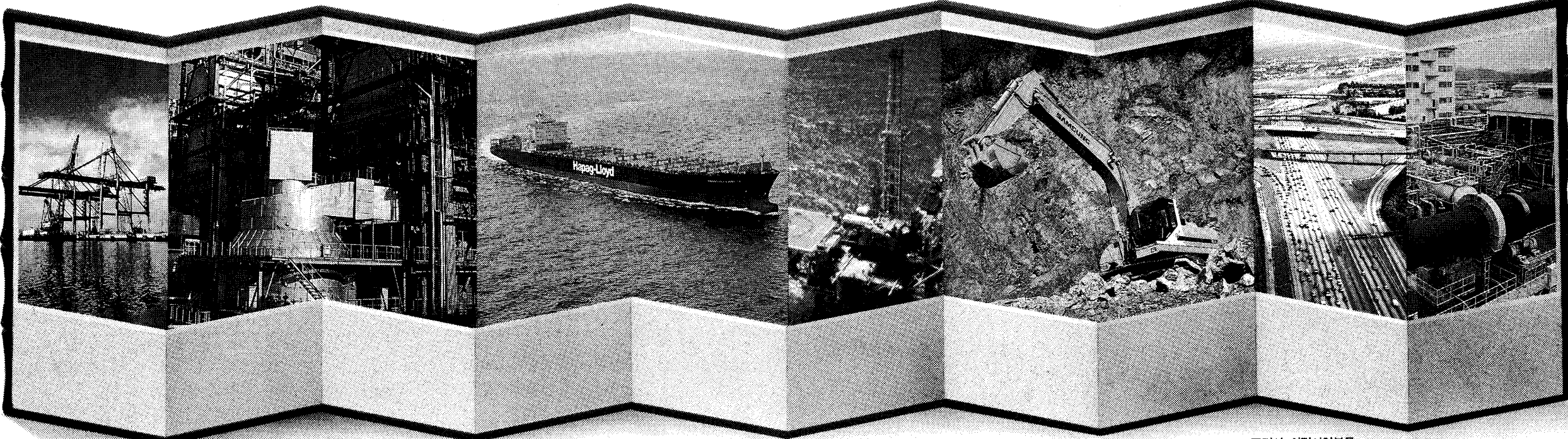
회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주변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 습니까?

조총장: 학교발전과 민주화는 절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물리적 변화만을 발전, 민주화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 민주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포용하고 격려하고 불신과 미움을 걷어내고 화합하는 경희가족 정신으로 모두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희의 하나됨을 위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안동문: 총장님의 의견을 솔직히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많은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대 대학주부가 대학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은 어떠한

「속」 창간 37주년 지령 1000호



■플랜트 및 산업기계사업부문
-컨테이너 크레인 (M.L.A. 플랜트)
-발전설비 (광양제철소)

■조선·해양사업부문
-4422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상석유 생산 설비

■중장비 사업부문
-대형굴삭기 MX14-2

■건설·환경사업부문
-고속도로
-플랜트

기술로 미래의 十長生을 실현한다.

자연을 소재로, 인간의 무한한 꿈을 기술로 이루어 나갑니다. 물과 바람과 흙, 이 무한한 자연의 요소를 통해 인간의 꿈을 실현해가는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이렇듯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첨단 기술로써 성취해 갑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함께 하는 삼성중공업 —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술을 통한 인간행복의 구현'이란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조선해양, 중장비, 건설, 환경의 각 사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신화를 만들어갑니다.



첨단기술로 新 중공업시대를 여는 — 삼성중공업